

가정 예배 모범

- 2022_12_11_장기중앙교회

매일성경 12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모든 권위 위에 가장 높은 권위이신 왕의 왕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도 겸손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안개가 날 가리워”(주님은 산 같아서)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전도서 8장 1~ 8절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전도자가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2, 4절)?

전도자는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미 하나님께 맹세하였으며, 왕의 말에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입니다. 따라서 왕의 말에도 권위가 있으며,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바울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권위를 업신여기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자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롬 13:1, 2). 이 세상에 질서를 세우시고 유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위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섭리 안에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두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세상을 다스리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위에 주신 권위를 존중하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2) 지혜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5절)?

전도자는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권고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설명합니다(1절). 어리석은 사람들은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함으로 화를 당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고 왕의 명령에 따름으로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왕의 말에 맹목적으로 순종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들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함으로 왕의 명령에 지혜롭게 반응합니다. 시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에트’는 “어떤 일(말, 행동)을 행하거나 하지 않을 적절한 시기”를, 판단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미쉬파트’는 “행할지 말지에 관한 결정과 과정”을 뜻합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의 권위와 일들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로 행동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